

숨은 얼굴 당당히 드러냅니다 '힐링 소록도'



박대조 작가가 27일 소록도를 찾아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사람들'이라는 옹벽 벽화 제작에 필요한 환자들의 얼굴 사진을 찍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110m 벽화 프로젝트 시작
작가들, 주민 사진 촬영...제작비 시민 모금

“나처럼 못생긴 사람을 뭐하러 찍어!” “예쁜 모습 찍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려요.” 27일 오후 3시30분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小鹿島, 커튼이 쳐진 7평 남짓한 방에서 작가 박대조씨, 곽형수 남포미술관장, 소록도 한센인 시인 강창석씨는 여든이 넘는 이소진(82·가명) 할머니를 카메라 앞으로 끌어 앉혔다.

나이가 들면서 잘 듣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사진 찍는 이유를 큰 소리로 알려주자 보니 작은 방과 복도는 이들의 목소리로 울렸다.

“얼굴 윤곽만 나오게 할 겁니다.” 강씨는 자식 때문이라면 격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들었다. “그래도 싫어.” 소록도에 머문 세월만 48년. 물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 권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육 숨어버리려고만 했던 마음이 쉽게 변할까.

“이 피라지를 뭐하러 찍냐”며 손사래를 치던 할머니가 슬며시 돌아앉았다. 그리곤 한마디 했다. “머리 좀 빗고.”

남포미술관 기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행-소록도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소

록도 옹벽 벽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소록도병원 내 길이 110m짜리 옹벽에 대형 벽화(높이 3m)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1916년 ‘어린 사슴’을 닮은 섬, 소록도에 한센인들이 강제로 격리된 뒤 수십년 넘게 차별과 핍박을 받았던 과거, 소록도 사람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힘써온 이들과 환자들의 모습을 소록도 지도에 드로잉 방식으로 그려 넣은 현재, 희망과 생명의 소중함을 형상화한 미래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제작된다.

오랜 세월, 권력과 오히려 마음 한편 응어리를 간직한 채 살아온 소록도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물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현지 환자들을 스के치해 그려넣는 데 필요한 사진 촬영은 벽화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록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 오랫동안 쌓여 있던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세상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작업이라는 점도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한몫

을 했다. 작가는 동네를 돌며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 취지를 설명하면서 요청했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모든 환자들의 소망도 들었다. 그래서인지 첫날에만 40년 가까이 소록도에 머물렀던 60여명의 환자들이 카메라 앞에 섰다.

벽화 작업에는 박대조씨 뿐 아니라 이영지(한국화), 김병진·강득봉·이경재·박민정·변숙경(이상 조각), 오영수·박서운·오기근(이상 서양화) 등 10명의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재능 기부 형식으로 만든다. 제작비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으로 지원한다.

제작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4000만원의 비용 중 기업의 지원을 받은 1000만원 외에 나머지 작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입 비용 3000만원을 다음달 17일까지 모아야 한다. 하지만 고작 47명이 참여해 493만5000원만 모인 게 전부다. 광 관장은 “이곳저곳 뛰어보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참여 방법이 낯설고 홍보도 부족해 걱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모금에는 한국예술위원회 문화나눔 포털(fund.arko.or.kr)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1-832-0003.

/소록도=김지을기자 dok2000@



2013년 새해, 행복한 웃음으로 시작하세요.

광주일보사는 신년을 맞아 유쾌한 웃음이 함께하는 '개그플러스'를 드&뉴' 광주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무대는 수많은 유행어를 만들어낸 각 방송사의 간판 개그 프로그램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루수 박성호가 등장하는 '맨붕스쿨', 사회 이면을 파헤치며 웃음을 전파하는 '불편한 진실', 송중근의 '생활의 재발견', '더 레드', '용선생', '물한 남친', '버퍼러스', '당연한 얘기' 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양한 코너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개그맨들의 무한 변신과 개인이 열전, 특별 게스트 공연, 팬 사인회, 포토 타임은 이번 공연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 2013. 1. 13(일) 오후 3시, 6시 30분(2회)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추천 | 광주일보사 | 예매 | 티켓마루, 인터파크 | 문의 | 062-220-0541

가격 | VIP석 77,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우암학원 장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품질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가군)
원서접수 12.21(금)~26(수)
'2013' 대학원 일반전형
원서접수 11.12(월)~30(금)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표준점수 언어 10점 하락 외국어 11점 상승

수능 성적 발표...만점자 크게 늘어 상위권 경쟁 치열

지난 8일 치러진 2013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채점결과 작년 수능에서 쉽게 출제된 외국어는 어렵고 언어영역은 쉽게 출제됐다. <관련기사 7면> 이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해에 견줘 언어가 10점 떨어진 반면 외국어는 11점 상승했다. 언어는 1등급컷(등급 구분 점수)이 125점, 2등급컷이 122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한 두 문제로 등급이 같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2013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수험생 개인 성적은 28일 오전 통지된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언어 127점, 수리 가 139점, 수리 나 142점, 외국어 141점이었다. 언어는 작년보다 10점 하락했고 수리 나 4점, 외국어는 11점 상승했다. 수리 가는 지난해와 같았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개인의 성적이 평균점수로부터 어느 정도 위치한가를 나타낸다. 시험이 어려워 해당 영역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내려간다.

인원수로 보면 언어 만점자는 1만 4625명(이하 작년 1825명)에 달했고, 수리 가 1114명(482명), 수리 나 4241명(4397명), 외국어 4041명(1만 7049명)이었다. 언·수·외 3개 영역 만점자는 인문계열이 288명, 자연계열이 104명으로 작년 수능(인문 146명·자연 25명)보다 많이 늘었다.

탐구영역에서는 선택과목간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가 8점, 과학

탐구가 12점 차이가 나 선택과목이 정시전형의 변수로 부각됐다.

입시업체 이투스출은 이날 수능 성적 결과를 분석, 서울대 경영대학의 합격선을 549점, 의예과는 545점으로 추정했다.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은 548점, 자유전공학부 547점, 국어교육 543점, 연세대 경영 547점, 고려대 경영 546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고대 및 다른 중상위권 대학의 인기학과의 합격선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투스출은 서울 지역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연세대 544점, 고려대 541점 등으로 예측했다. 연세대 치의예과는 541점, 경희대 한의예과는 532점으로 추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다시 선 나로호... 발사 '이상무'

오늘 최종 리허설

갖춘 공기가 주입됐다.

또 나로호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고 유·공압 연결선 상태와 발사체 방위각 등을 점검하는 작업도 모두 마무리됐다. 발사 예정일 하루 전인 28일에는 최종 발사 준비 리허설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나로호 발사 예정일과 시각은 29일 오후 4시~6시55분으로 유지되고 있다. 29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에는 중국 내륙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이지만 발사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바람은 초속 3~5m로 예상된다.

이날 발사대에 도착한 나로호 상단(2단)부에는 '이동형 온도제어 장치(MTU)'를 통해 온도와 습도 조건을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IOPE 스킨리포트

3일 후, 기대하세요! 피부 좋아졌다는 말!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바이오인자로 구성된 Bio-redox™ 성분으로
3일만 사용해도 피부 좋아졌다는 칭찬을 듣게 해드립니다

아이오페 연구진은 25일간 빛, 온도, 물, 공기를 제어하는 바이오 인큐베이션 기술을 통해 항산화효소 배양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피부 친화적인 바이오성분인 Bio-redox™가 바이오 에센스 한 병에 93.7% 함유되어 피부상태를 빠른 속도로 개선시켜줍니다.

3일 만에 느껴지는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

피부 컨디션 개선에 만족한다	90%
피부 매끄러움에 만족한다	90%
피부 윤기가 증가함을 느낀다	90%
피부 보습력에 만족한다	90%

바이오 에센스 임상실험자 대상 3일 후 만족도 조사 결과
2012.4.9 - 2012.4.30 생년월일 28명 대상 / 조사기관 (주)아이오페

NEW
바이오 에센스
IOPE

3일 후 피부상태를 보고 싶다면, 직접 QR코드를 찍어주세요!
IOPE BIO ESSENCE